

보도 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 일시	2022. 11. 18.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 당	과장 안도현, PM 김성수(032-453-7031, 7343)

##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... 당초 기대 뛰어넘는 큰 성과 거뒀다

IFEZ 내 유럽형 글로벌 힐링스파&리조트 유치에 수제 맥주 제조 회사 및 스타트업과 연계 협업 인천경제청, 유정복 시장·김진용 인천경제청장 등 참석 독일 프랑크푸르트서 개최 투자유치 설명회 성료

- 유럽형 글로벌 힐링스파&리조트 유치를 비롯 창업 200여년에 가까운 독일 수제 맥주 제조회사 및 아이오티 블록체인 스타트업과의 연계 협업 등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.
- 인천시는 17일(현지 시각) 국제 비즈니스 중심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정복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.
- 설명회에는 총 25개 기업의 최고 경영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3개 회사와의 상호 협력 의향서가 체결되는 등 당초 기대를 훨씬 뛰어 넘는 큰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. 또 참석한 많은 기업들도 앞으로 협업을 희망, 추가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- 먼저, 인천경제청이 테르메 그룹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에 바다를 품은 유럽형 글로벌 힐링스파&리조트 시설이 유치될 전망이다.

- 주요 내용은 인천경제청이 테르메 그룹의 IFEZ 내 시설 유치 및 운영을 위한 부지 모색에 협력하고 행정 서비스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소통 협력을 지원한다. 테르메 그룹은 금년 내 미화 2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신청을 제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.
-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은 현재 루마니아 및 독일 등에 4개의 힐링스파&웰빙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. 테르메 부쿠레슈티 지점의 경우 지난 2016년 개장, 연간 12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유럽 최대의 힐링, 휴식 공간으로 명성이 자자하다.
- 테르메 그룹만의 특징점은 계절과 상관없이 1년 365일 운영이 가능한 실내 돔 형태의 스파 공간을 식물원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여가공간이라는 점이다. 실제로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점의 경우 국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(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)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(Platinum) 등급을 취득한 바 있다.
- 테르메 그룹이 IFEZ를 투자처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과 바다를 품고있는 동북아 관광허브로서 국제공항, 크루즈터미널 등이 인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.
- 또 지난 1831년부터 독일 전통 수제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폰크쉬타터(Pfungstadter)사와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시 수제 맥주 브류어리 투자 설치를 협의하고 송도 맥주 축제를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협업기로 했다.
- 이와 함께 IoT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항공물류 시스템 개발 벤처 기업인

아이오티에이엘(ioTAL GmbH) 회사와 상호 협력 의향서를 체결, 앞으로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의 항공기업과의 협업, 인천스타트업파크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
-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“이같은 많은 성과를 토대로 IFEZ의 투자유치 확대에 최선을 다해 인천시가 초일류 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- 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이번 해외투자유치 설명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. 향후 실질적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건이 더 있으리라 기대된다”며 “집객효과가 높은 테르메 그룹의 힐링스파&리조트의 인천 유치를 비롯한 IT(정보기술) 및 문화 측면에서의 협업은 IFEZ 나아가 인천의 관광객 유치, 지역경제 활성화, 스타트업 발전 등에 큰 도움을 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돼 있습니다.